

朝鮮通信使와 6月の 日本民俗

-얼음의 초하루 민속을 중심으로-

노성환*

目 次

서 論

본 論

제1장 6월의 민속을 기록한 조선통신사

제2장 조선통신사와 얼음의 초하루

제3장 6월의 설날 민속

결 論

서 論

일본인들은 6월을 흔히 미나즈키(水無月)라 한다. 그 말의 뜻은 물이 없는 계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반대로 물이 많은 달 즉, 「물의 달」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그 이유는 농민들에 있어서 그 달은 논에 물을 댈 수 있도록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도 미나즈키 중 “미”를 물(水), “나”는 조사 “의” 라는 뜻을 가진 “노(の)”에 해당되는 말로 해석한 결과일 것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일본의 음력 6월은 모심기가 끝나고 잡초제거와 물대기에 신경을 쓰면서 벼가 무사하게 무르익기만을 기원하며 여름의 더위를 맞이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옛날 일본인들은 어떻게 보냈을까?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무더운 여름 날씨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름철의 역병이 나돌고, 또 장마와 태풍이라는 복병의 위험성도 자리 잡고 있는 시기이다.

* 울산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비교민속학

그러므로 여러 가지 민속적인 의례를 행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시기에 「오오하라이(大祓)」라 하여 액운을 물리쳐 주는 민속종교적인 제의가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조선시대 때 외교의 목적으로 일본으로 다녀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통신사들이다. 그들은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들의 기록들 가운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기사는 없을까?

그들의 기나 긴 여정 속에 6월을 맞이하고 그에 따른 일본인의 생활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쩌면 그들이 남긴 기록들 속에 6월의 일본 민속에 대해서 서술한 기록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도 않은 것이다. 만약 있다면 그러한 민속적인 체험과 지식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또 그들의 기록에는 어떠한 부분을 기록하고 어떤 것들이 빠져있는 것이며, 또 그 속에는 어떠한 문화적인 오해와 편견은 없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기록이 민속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다보았을 때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론

제1장 6월의 민속을 기록한 조선통신사

그들이 남긴 사행록에도 일본 6월의 민속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그것이 들어있는 것으로는 경섭의 『해사록(海槎錄)』, 임수간의 『동사일기(東槎日記)』, 신유한의 『해유록(海遊錄)』, 조명채의 『봉사일본시문견록(奉使日本時聞見錄)』 등이다. 그 중 신유한의 것은 6월의 경험 없이 간접적으로 지식을 얻어서 기록한 것이나, 나머지의 것들은 모두 직접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6월 민속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들의 기록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보기로 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경섭의 기록이다. 그는 일행들과 함께 에도(江戸)를 향해 가면서 5월 18일경에 후지산이 있는 곳을 지났다. 그 때 그는 일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일본은 바다 가운데 있어 풍토가 후덥지근하며 겨울에는 추위를 견딜 수 없고, 여름에는 한더위가 없다. 그 나라의 풍속이 6월 초 1일에는 얼음을 삼켜

한 해 동안의 더위를 물리치는 방법을 삼는다. 국중에 얼음이 없고 오직 이산(富士山)에만 사철 있는데 얼음을 깨어 수송하는 동안에 바로 녹아버려 겨우 천황과 관백에게 바칠 뿐이다. 그 중에 얼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12월 초 1일에 얼음덩이 모양처럼 떡을 만들어 저장해 두고 기다리다가, 6월이 되면 얼음 대신 먹는다 한다.¹⁾

이상의 기록에서 보듯이 그의 기록이 꼼꼼하게 처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후덥지근한 풍토이라 하면서도 여름에는 그다지 덥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록에는 6월의 민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607년 당시 일본인들은 6월 1일이 되면 얼음을 먹는 풍속이 있다는 점이다. 그 때 일본은 시기적으로는 매우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얼음과 같이 귀중한 가치를 지니며, 그것을 후지산(富士山)에서 가지고 오는데, 일반인들은 구해 먹지 못하고, 천황과 관백만이 이를 먹으며, 그 대신 일반인들은 12월 초에 얼음모양의 떡을 만들어 두었다가 이 날 먹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6월 1일에 얼음과 얼음모양의 떡을 먹는 풍속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비해 일본을 다녀온 임수간은 매우 무성의하게 서술하고 있다. 경섬보다 100여년 뒤인 1711년에 일본에 다녀온 그는 경섬이 소개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6월 1일 얼음을 먹는 풍속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나라 풍속에 해마다 6월 초하루에 얼음을 먹어 1년 동안 더위 물리치는 방법을 삼는데 온 나라에 얼음 있는 곳이 없고 오직 이 산에만 있기 때문에 해마다 여기에서 얼음을 가져다가 다만 왜황 및 관백에게만 드리고 얼음을 얻지 못하는 자는 정월 초하룻날 떡으로 얼음 모양처럼 만들어 두었다가 6월이 되면 이를 먹어 얼음에 대신한다고 한다.²⁾

여기에서 보듯이 내용은 물론 문장 또한 위의 것과 아주 흡사하다. 나쁘게 말한다면 선배가 남긴 글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상의 문장이 경섬의 것을 그대로 빼긴 것이 아니고 일본인들에게 들은 것이 라면 6월1일의 일본민속은 경섬의 시대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하겠다.

한편 특이한 것은 이상과 같은 6월1일에 얼음을 먹는 풍속을 신유한은 다음과 같이 5월 5일의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부분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섬의 『해사록』 <국역총서 해행총제(2)>(민문고, 1989년) p291

2) 임수간의 『동사일기』 <국역총서 해행총제(9)>(민문고, 1989년) p207

겨울 추위가 맹렬하지 아니하여 예로부터 눈이 한 자 되도록 쌓일 때가 없고 국가에도 얼음을 저장하는 법이 없다. 오직 부사산 상봉에는 사시로 얼음이 얼어 있으므로 단옷날에 그것을 캐어다가 천황과 관백의 궁에 바치고, 서민들은 떡을 얼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먹어서 더위를 막는 방법이라고 하니 가소롭다.³⁾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그는 후지산에서 운반해 온 얼음을 천황과 관백이 먹고, 또 서민들은 얼음모양을 한 떡을 먹는 것은 6월 1일이 아니라 5월 단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5월 단오의 민속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아니다. 5월 단오에 그러한 민속이 일본에는 없다. 그것은 경섬과 임수간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6월 1일의 민속에 틀림없다.

신유한은 경섬과 임수간처럼 일본에서 6월을 맞이하고 있지도 않으며, 또 그렇다고 해서 단오도 직접 체험한 인물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에 관련한 것들을 기록하려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보다 앞서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의 기록을 읽어야 하며, 또 그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도 들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5월 단오의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에 비해 조명채는 지금까지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도 경섬과 임수간과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후지산을 지나갔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는 5월 16일경 이곳을 지나가면서 일본측으로부터 전례에 따라 떡을 선물 받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처음으로 마주수가 길 가다가 보내 준 것을 열어 보니 곧 인절미 같은 것이었다. 먹으면 더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인데 기해년(1719)사행 때에 초겨울에 이곳을 지났는데도 이 떡을 공궤하였으니 더위를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다.⁴⁾

여기서 보듯이 그는 후지산을 통과하면서도 앞서 지나간 사람들처럼 6월 1일 얼음을 먹는 풍속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기록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들을 그의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일본측으로부터 받았다는 떡이 인절미처럼 생겼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먹으면 더위를 물리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며, 그것은 일본이 전례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는 사

3) 신유한의 『해유록』 <국역 해행총제(2)>(민문고, 1989년) p36

4) 조명채의 『봉사일본부시문건록』 <국역 해행총제(10)>(민문고, 1989년) p142

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행들도 이곳에 지날 때는 그와 같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서 빠뜨리고 얼음과 얼음모양의 떡에 관한 것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기록한 조명채는 비록 얼음을 먹는 습속과 얼음 모양의 떡은 빠뜨렸지만 여름나기 위해 먹는 또 하나의 떡인 인절미와 같은 떡을 기록하고 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일본측이 그의 일행에게 제공한 것이 5월이어서 그것에 대해 별로 의식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그 떡은 앞으로 서술하겠지만 얼음, 얼음 모양의 떡과 함께 6월 1일에 먹는 중요한 음식이다.

이러한 기록들을 토대로 당시 통신사들은 일본에 있어서 6월 1일의 민속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즉, 그 날 더위를 이기기 위해 얼음과 떡을 먹는 풍속이 있는데, 얼음은 후지산밖에 없는 아주 귀중한 것이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천황과 관백(쇼오군) 정도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12월 초에 얼음모양의 떡과 인절미와 같은 떡을 만들어 두었다가 이 날에 먹으며, 얼음을 후지산에서 가지고 오는 이유는 그 산이 1년 내내 얼음이 얼어있는 것도 있지만 얼음을 저장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음식을 먹는 6월 1일을 일본에서는 흔히 얼음의 초하루(氷의 朔日)라 한다.

제2장 조선통신사와 얼음의 초하루

1) 얼음

그들이 기록한 얼음의 초하루 민속은 온통 음식에 집중되어있다. 그 음식들은 얼음과 「코오리모치」라는 얼음 떡과 「카키모치」이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1791년(寬政 3)에 나온 『백인일수(百人一首)』에서도 발견된다. 그것에 의하면 “6월의 삭일(朔日)에는 얼음을 먹는다. 인덕천황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얼음을 저장하는 장소를 히무로(氷室)라 한다. 지금은 이러한 일이 없지만 신분이 낮은 서민들은 얼음 떡과 카키모치 등을 이용하여 히무로(氷室)의 余風을 축하한다.”고 기록하고 있다.⁵⁾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도 시대에는 6월 초하루에 얼음에 비유되는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었을 수 있다.

일본의 여름은 고온다습하여 느끼는 더위는 실제의 기온보다 더 높다. 여름의 더위를 이기기 위해 얼음을 먹는 풍속은 그 기원은 고대에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유래에 대해 8세기의 문헌인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있다.

5) 이 문장은 寬政 3년(1791) 辛亥 初夏에 塩屋平助와 塩屋喜助가 펴낸 『百人一首』의 參議篁의 시를 주석한 문장에 있는 것이다.

「인덕천황(仁德天皇) 62년 5월 누카다오호나카츠히코(額田大中彦皇子)가 쓰게(鬮鷄)에 사냥을 나갔다. 산 위에 올라 들판을 바라보니 어떤 물건이 있는데, 마치 초가지붕과 같았다.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하니 돌아와서 그곳은 동굴이라 한다. 그리하여 쓰게노이나기노오오야마누시(鬮鷄稻置大山主)를 불러 물어본즉, “히무로(氷室)이다.”라고 한다. 황자는 “그 안에 두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에 사용하는 것이냐?”하고 묻자 “땅을 1장정도 파고 억새를 그 위에 덮고, 두텁게 억새와 참억새를 깔고 얼음을 가지고 그 위에 놓습니다. 여름을 넘겨도 녹지 않습니다. 더울 때 수주(水酒)에 담구어 사용합니다.”라고 대답했다. 황자는 그 얼음을 가지고 와서 천황에게 바쳤다. 천황은 매우 기뻐했다. 그 이후 12월(師走)이 될 때마다 반드시 얼음을 안에 넣어두고 춘분이 되면 처음으로 얼음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⁶⁾

이 기록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얼음을 보관해 두었다가 천황이 신하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였듯이 여름에 얼음을 먹는 습속은 궁중에서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그 시기가 춘분이었으나 그것이 점점 뒤로 늦추어져 6월로 되었으며, 그 범위도 천황과 귀족에서 관백(쇼오군)과 무사계급에까지 확대되었다.

에도시대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강부연행사(江府年行事)』에 의하면 6월 1일은 “히무로(氷室)를 축하하는 날이며, 사빙절(賜氷節)이라고도 하며 공식적으로는 얼음을 먹는 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⁷⁾ 궁중의 천황가와 막부의 장군가에서는 얼음을 먹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차례로 얼음을 먹는 의례가 치러졌다. 막부에서는 우선 취상어정(吹上御庭)의 히무로의 얼음을 「고산케(御三家)」에 보내고, 그 다음으로 노중(老中), 와카토시요리(若年寄)들에게 배분되어 먹게 했다.⁸⁾ 통신사의 일행이 천황과 관백에게 얼음이 바쳐졌다고 기록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상의 설화는 사빙절(賜氷節)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얼음 보관방법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즉, 땅을 파고 억새와 참억새를 이용하여 깔고 덮고 하여 겨울의 얼음을 보관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얼음의 창고라는 뜻으로 “히무로(氷室)”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헤이안(平安)시대의 문헌인 『연희식(延喜式)』에 의하면 그것을 야마시로(山城)에다 6개소, 야마토(大和), 카와치(河内), 오우미(近江), 탄바(丹波)에 각각 1개소씩 만들어 얼음을 저장케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곳의 얼음들은

6) 宇治谷孟 譯 『日本書紀(上)』(講談社 學術文庫, 1988年) p249

7) 三全村鳶魚編, 朝倉治彦校訂. 「江府年行事」 『江戸年中行事』(中央公論社, 1981年) p43

8) 宮田登 『江戸歳時記』(吉川弘文館, 1971年) p72

음력 4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궁중에 납품되었다고 한다.⁹⁾

오늘날까지 교토에는 히무로라는 지명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한 곳들은 모두 옛날 천황의 궁성에 필요한 얼음을 보관해두었던 창고가 있었던 곳이다. 이처럼 귀족층들은 추운 겨울에 얼음을 확보하여 히무로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날씨가 더워지면 하나씩 꺼내어 먹었다. 그리고 궁중에서는 히무로의 얼음이 녹는 상태에 따라 그 해의 길흉을 점을 쳤다고도 전해진다.

심지어 헤이안(平安) 시대에는 오늘날 팥빙수와 같은 음식도 있었다. 세이쇼나곤(清少納言)의 『마쿠라노소우시(草枕子)』에 의하면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음식으로 잘게 썰은 얼음에 「아마즈라(甘ずら)」라는 달작지근한 조미료를 넣고 새로운 금속제 그릇에 담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¹⁰⁾ 이처럼 귀족들은 얼음을 눈처럼 썰어서 조미료를 얹혀서 먹기도 했던 것이다.

통신사들은 그 재료가 되는 얼음의 산지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다. 그 얼음을 모두 후지산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심지어 신유한은 그 이유를 얼음을 보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고대로부터 여러 지역에 히무로라 하여 우리나라의 석빙고와 같은 것을 여러 곳에 만들어 더운 여름에도 얼음을 보관하여 먹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전혀 근거도 없이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리가 없을 것이다. 그에 대한 해답을 앞서서도 본 『강부연행사』라는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에 의하면 궁중에 오래 전부터 6월1일에 얼음을 먹는 풍속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 여러 지역에 히무로가 만들어져 있으며, 또 후지산(富士山), 伯耆의 다이센(大山)에서도 얼음이 바쳐진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¹¹⁾ 얼핏 보아 후지산과 다이센에서만 바쳐지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다.

그리고 막부의 쇼우군에게 6월 1일의 얼음을 상납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은 카가번(加賀藩) 즉, 카나자와(金沢)의 마에다번(前田藩)이었다. 얼음을 후지산에서 운반해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 미리 에도(江戸)에 있는 자신의 집안의 얼음 창고 즉, 석빙고에 보관해두었다가 쇼우군에게 바쳤다. 이 얼음은 에도성(江戸城)의 궁녀들에게도 배분되었는데, 얼음이 땅 속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흙투성이이었다고 『강호성대오(江戸城大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¹²⁾

9) 渡邊正「氷」『國史大辭典』p222에서 재인용

10) 三越『日本を楽しむ年中行事』(かんき出版, 2004年) p70

11) 三田村篤魚編 朝倉治彦校訂, 앞의 책 p43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일은 얼음의 납품을 책임을 졌던 카가번(加賀藩)의 영주 저택이 있는 곳에 6월 1일에 눈이 내렸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다. 가끔 다른 지역에서도 6월 1일 눈이 내렸다는 예는 있다. 그러나 도쿄에서는 이 지역밖에 없다. 『강호명소기(江戸名所記)』의 「코마고메 후지(駒込富士)」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 신사는 백년 정도이고, 그 신이 혼고(本郷)에 있으며, 그곳에 작은 산이 있다. 산 위에는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밑에 6월 1일에 큰 눈이 내려 쌓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밑에 서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여 나무의 밑에다 작은 사당을 짓고, 시기가 아닌 때에 대설이 내려 「후지곤젠(富士権現)」을 권청하여 모셨다.”는 기록이 있다.¹³⁾

6월 1일에 눈이 내렸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만일 눈이 내렸다면 만년설인 후지산과 이미지가 같다. 또 그곳을 후지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사실도 놓칠 수 없다. 실제로 도쿄(東京)에는 후지라는 말이 들어가는 지명이 많다. 가령 후지미초(富士見町), 후지미사카(富士見坂)라는 것이 바로 그 예들이다. 그 뿐만 아니라 산들도 많았다. 앞에서 든 「코마고메 후지(駒込富士)」 이외에도 아사쿠사(浅草), 메구로(目黒), 혼조무쓰메(本所むつ目), 타카다바마(高田馬場), 텃포슈(鉄砲洲), 그리고 후카가와(深川)의 하찌만 신사(八幡神社)경내, 칸다(神田)의 명신사(明神社)의 경내에도 각각 후지산이 있었다.¹⁴⁾ 이들 산은 진짜가 아닌 가짜 후지산이었다. 후지산을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미니췌어 후지산이었다. 즉, 모의적인 형태로 행하여지는 후지산을 오르기 위한 대체시설인 셈이다.

그 중에서 카가번의 저택이 있었던 「코마고메 후지」는 오늘날까지도 유명하다. 사람들은 이러한 후지산들을 아무 때나 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에는 7월 1일에 하지만 원래는 얼음의 초하루인 6월 1일에 했던 것이다.¹⁵⁾ 이러한 「코마고메의 후지산」이 있었던 곳에 카가번의 얼음 창고 히무로(氷室)가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6월 1일이 되면 얼음을 끄집어내어 쇼우군에게 바쳤던 것이다. 그러므로 후지산에서 얼음을 가지고 온다는 일본인들의 말은 전혀 이상할 것이 못된다. 어쩌면 그들은 코마고메라는 곳이라는 것을 생략하고 단지 후지산에서 가져온다고 설명하였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통신사들의 얼음에 대한 오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로지 후지산의 얼음만 이용되었으며,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12) 宮田登, 앞의 책 p72에서 재인용

13) 宮田登, 앞의 책 p73에서 재인용

14) 鈴木棠三 『日本年中行事辭典』(角川書店, 1977年) p440

15) 長澤利明 『江戸東京歳時記』(吉川弘文館, 2001年) pp96-101

것이 얼음저장법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된 지식에 의해 생겨난 문화적 오해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견해에는 후지산과 다이센 뿐만 아니라 에도와 교토 내에서도 얼음을 저장하는 히무로라는 창고가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2) 코오리모치(氷餅)과 미나즈키(水無月)

한편 통신사들이 “얼음덩이 모양처럼 생긴 떡” “얼음 모양으로 생긴 떡” “얼음의 형상으로 만든 떡”이라고 표현한 떡은 과연 어떠한 떡을 가리키는 것일까? 실제로 그러한 떡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

여기에 힌트를 제공해주는 것은 경점이 그 떡은 12월 1일에 만든다고 하였고, 임수간은 정월 초하루에 만든다고 하는 기록이다. 그 기록들은 시기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겨울에 만들어 두었다가 6월에 먹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를 이룬다. 이러한 성격의 떡을 일본에서는 「코오리모치」 즉, 얼음 떡이라고 부른다. 이것에 대해 일본의 민속학자 스즈키 토오조오(鈴木棠三)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다.

설날과 정월 보름에 만든 카가미모치(鏡餅)와 모치바나(餅花)를 보존해두었다가 이 날(6월 1일)에 먹었다. 지금도 오사카부(大坂), 또는 후쿠이(福井), 기후(岐阜) 등의 일부지역에서는 쌀 과자나 볶은 콩을 먹는다. 기후현의 이비군에서는 정월의 모치바나를 6월 1일에 볶아서 먹는데, 이를 얼음을 볶는다고 말하며, 얼음차(氷茶)라고도 한다. 또 이 날 우박 등이 내리면 얼음의 초하루라 하여 그 해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좋아하며 콩을 볶아서 먹기도 했다. 이것은 아마도 사빙절(賜氷節)의 고사와의 관계를 잊어버린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가현(佐賀県)小城郡에서는 설날 새해의 신에게 바친 떡을 정월 7일에 불에 살짝 구운 뒤 찬물에 씻어서 말려 두었다가 6월 1일에 얼음 떡으로서 먹는다. 그리고 산인(山陰), 호쿠리쿠(北陸), 토호쿠(東北)지역에서는 설날의 떡을 보관해두었다가 6월 1일에 하카타메(歯固)라 하여 먹는 풍습이 있다.¹⁶⁾

이처럼 대체로 설날 떡을 보관해두었다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음력 6월 1일에 그것을 얼음 떡이라 하여 먹는 풍속은 전국적으로 있었다. 이러한 민속은 떡의 색깔이 얼음과 같이 희고, 또 설날에 신에게 바쳐졌던 것이어서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데서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도시대에는 얼음 떡이 스와(諏訪)의 타카시마번(高島藩)에 의해 막부에 헌

16)鈴木棠三, 앞의 책 pp435-436

상되었다. 번(藩)의 독점으로 타카시마 성(高島城) 안의 얼음 떡을 만드는 방에서 사무라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즉, 서민들은 만들기는커녕 손에 대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었다. 아유자와가(鮎沢家)에 남아있는 1835년(天保6)경의 문헌인 『빙빙원수목록(氷餅員數目録)』에 의하면 한 해 겨울철에 5000본 정도 만들며, 그 중 1할이 특상품으로서 상납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떡 만드는 방법은 그 모양 그대로 먹든지, 아니면 물이나 뜨거운 물에 녹여서 마셨다 한다. 이처럼 토쿠가와 막부의 장군들도 얼음이 귀중했던 시절에 더위를 이기기 위해 얼음 떡을 먹었던 것이다.

이것이 일본 전통과자로 발전하게 된 것은 메이지(明治) 시대부터라고 한다. 특히 교토에서는 6월에 먹는 떡으로서 미나즈키(水無月)라는 것이 있다. 비록 그것은 겨울철에 만들지 않지만 그것의 출발은 얼음의 초하루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양은 삼각형인데, 색깔은 얼음과 같이 약간 희며 투명하게 만든 떡인데, 모양은 삼각형으로 되어있는데 그 위에 팔을 얹었다.

이에 대한 교토 사람들의 설명은 통신사들과 같았다. 즉, 6월 1일에 얼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천황 정도이지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얼음 대신 얼음처럼 생긴 떡을 만들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잡귀를 쫓기 위해서 그 위에 팔을 얹었으며, 모양을 삼각형으로 한 것은 얼음 창고(히무로)의 얼음조각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서민들은 얼음에 비유되는 떡을 겨울철에 만들어 보관해두었다가 6월 1일에 먹었다. 그러한 것을 통신사들이 들은 것이다. 경심이 그것을 12월 1일에 만든다고 기록한 것은 정월 1일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앞에서 본 『일본서기』의 기록처럼 고대의 형태가 당시에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는 것이다.

3) 카키모치(掻き餅)와 인절미

한편 조명채는 앞에서 보았듯이 후지산을 지나갈 무렵 대마도측으로부터 인절미 같은 떡을 제공받으면서 그 떡을 먹으면 더위를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여기에 나오는 인절미와 같은 떡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 관한 실마리는 역시 그의 기록 가운데 “기해년(1719) 사행 때에 초겨울에 이곳을 지났을 때도 이 떡을 공궤하였으니 이것으로 더위를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겨울에 만들어서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여름에 먹으며, 그 모양이 인절미같이 생겼다면 그것은 「카키모치(掻き餅)」라는 떡 밖에 없다.

「카키모치」란 쌀 과자의 일종인데, 보통은 설날의 떡을 그늘에 말려 두었다가 그것을 6월 1일에 손으로 쪼개어 불에 구워먹는 것을 말한다. 손가락으로

굽듯이 떼어내기 때문에 카키(掻き)라는 말을 써서 이름을 만들었다. 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쪼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즉, 설날의 신성한 떡을 칼로 자른다는 것은 좋은 인연과 복을 자른다는 의미와도 같이 좋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어 꺼렸기 때문이다.

손으로 쪼개면 모양도 일정치도 않고 모양도 제각기이어서 손님 대접용의 쌀 과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모양도 일정하고 보기도 좋은 형태의 것이 개발되었다. 1684년의 문헌 『옹주부지(雍州府志)』에 의하면 “원산(円山)의 안양사(安養寺) 및 쌍림사(双林寺), 그리고 영산(靈山)의 정법사(正法寺)의 승려들은 현동(玄冬)에 떡을 만들어 얇게 썰어서 3寸정도의 길이로 잘라서 음지에서 말렸다가 불에 살짝 구워 보관해두었다가 빈객이 있을 때 그것으로 접대를 한다. 그 밖의 것도 있지만 이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이를 원산의 카키모치(円山掻餅)라 한다.”라는 내용에서 보듯이 보기 좋은 「카키모치」가 탄생한 것이다. 이처럼 카키모치에는 설날의 거울 떡을 손으로 쪼개어 구운 것도 있지만 인절미처럼 가느다랗고 길쭉하게 썰어서 말린 것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카키모치를 일본인들은 6월 1일에 구워서 먹었다. 그 증거로 앞에서 본 『강부연행사』에도 “삭일(6월 1일)에 귀족들은 얼음 떡과 「카키모치」를 먹는다.”는 기록이 엿보이기 때문이다.¹⁷⁾ 또 효고현(兵庫縣)에서는 오늘날에도 음력 6월 1일이 되면 차가운 물로 만든 카키모치와 설날에 먹는 거울 떡(鏡餅)을 먹는 곳도 있다. 이 지방에서는 겨울철에 만든 떡은 벌레들이 붙지 않듯이 겨울의 얼음을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여름을 날 수 있다 하여 그것을 얼음에 비유하여 먹는다¹⁸⁾

그러나 인절미는 카키모치처럼 딱딱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다. 그러므로 일본측은 6월의 초하루의 풍속에 따라 시절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새롭게 떡을 만들어서 모양만 카키모치처럼 네모나게 잘라서 대접하며, 「카키모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을 설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아 그들 나름대로 최대한 성의를 보이며 통신사들을 대접하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통신사들은 단순히 인절미와 같은 떡으로서 받았으며, 또 설날에 만든 떡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더위를 예방하기 위한 떡이라고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의구심마저 품는 문화적 오해가 생기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오해도 어찌면 일본측의 설명이 부족하여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민속이 없고, 또 외교의 목적을 위해 일본으로 간 그들에게 그것이 더위에 방을 위한 음식이라는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일본의 「얼음 초하루」의 민속에

17) 三田村鳶魚編 朝倉治彦校訂. 앞의 책 p43

18) 田中久夫 『年中行事と民間信仰』(弘文堂, 1985年) p157

관한 이해를 구한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제3장 6월의 설날 민속

그렇다면 일본인들이 왜 하필이면 6월 1일에 얼음과 얼음 떡 그리고 「카키 모치」를 먹었을까? 조선통신사들은 더위를 이기기 위해 먹는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그것이 6월 1을 택하여 먹어야 하는지 그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6월 1일의 민속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들은 6월 1일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로 생각했다. 그 명칭만 하더라도 아주 다양하며, 또 그 속에는 각기 다른 민속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사실들이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칭에는 특히 설날을 나타내는 말들이 많은 것도 주목을 끈다. 예를 들면 유행설날(流行正月), 얼음의 초하루(朔日), 키누누기(衣脱ぎ)의 초하루, 와타누키(綿抜き)의 초하루, 죽순(筍)의 초하루, 벌레퇴치(虫封じ)의 초하루, 만코쿠(万石)의 초하루 등의 이름들이 있는 것이다.

유행설날이란 6월 1일을 한해가 시작하는 설날로 인식하여 이를 축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5월 그믐을 선달그믐과 같이 잡귀를 물리치는 콩 뿌리기 행사를 한 다음, 6월 1일을 설날이라 하여 「조오니」라는 설날의 떡국을 먹는다고 한다. 이는 1년을 둘로 나누어 전반부에서 나쁜 일들이 연속적으로 많이 일어나면 그 해를 빨리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것이다. 특히 역병이 돌거나 지진 등으로 사회가 불안하면 6월 초하루를 기해 유행설날을 행하였다. 실제로 근세 1667년(寛文 7), 1759년(宝曆9), 1771년(明和8), 1778년(安永7), 1814년(文化11)에는 6월 1일에 유행설날로 정하고 설날의 행사를 치렀다고 전해진다.¹⁹⁾

이같이 국가차원에서든 했지만, 개인단위로도 치러졌다. 가령 그 해에 액년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나 유달리 재난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 날에 코오리 모치를 먹고 설날처럼 신사에 참배하여 액을 물리치는 것이다.²⁰⁾ 그 예로 오카야마(岡山)지방에서는 6월 1일을 「하네야쿠노히(はね厄の日)」라 하여 33세, 42세, 61세 즉, 액년이 된 사람은 이 날 신사참배를 하고 소면을 물에 흘려서 먹으면 액을 면할 수 있다는 속신이 있다. 이것도 액년의 운세를 설날을 미리 당겨서 함으로써 훌쩍 뛰어넘으려는 사고에서 발생한 것이다. 「하네」라는 말이 곧 뛰어넘는다는 의미의 말이기 때문이다.

19) 宮田登. 앞의 책 pp71-72

20) 田中宣一, 宮田登編 『年中行事 事典』(三省堂, 1999年) p228

그리고 「키누누기(衣脱ぎ)의 초하루」는 말 그대로 옷을 벗는다, 허물을 벗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령 니이가타(新潟) 및 나가노(長野)의 일부지역에서는 6월 1일을 새로운 여름옷으로 갈아입는 날, 또는 뱀이 허물을 벗는 날이기 때문에 뽕나무 밭에 가서는 안되는 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신슈(信州)와 사도(佐渡)에서도 이 날을 인간이 뱀과 같이 옷을 벗는 날이라 하여 뽕나무 밑에서 가서는 안된다는가, 또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자는 날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앙은 동북 지방에서는 「무케카이리(剥け返り)의 초하루」, 매미 허물 벗는 날이라고도 한다.²¹⁾ 「무케」란 허물을 벗는다는 의미의 일본어이다. 그리하여 이 날을 「무케(剥け)의 셋쿠(節供)」라고 하는 곳도 많다. 앞에서 본 도쿄의 「코마고메 후지산」 오르기 제의 때 많은 참배자들이 몰려드는데, 그 때 그 지역에서 인기 있게 팔려 나가는 토산품은 보리 짚으로 만든 뱀이다. 그 유래는 보영연간(宝永年間:1704-1711)에 킷파치(喜八)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농민이 만들어 팔았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간 짐은 역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여 그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이곳의 명물이 되었다고 한다.²²⁾ 그러나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것은 6월 1일에 뱀이 허물 벗는다는 인식에서 나온 아이디어 상품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와타누키(綿抜き)」는 본래 추운 겨울철부터 내내 입었던 옷을 시원하게 입기 위해 옷 속에 들어있는 솜을 빼내는 것에서 생겨난 말이다. 이는 이 날을 기준으로 여름옷을 갈아입는 것을 말한다. 즉, 죽음을 통해 부활이 이루어지는 민속적으로는 중요한 의미의 날이었다. 그러한 민속으로 말미암아 일련종의 사원에서는 「고로모 가에(衣更)」라 하여 조사상(祖師像)의 옷을 갈아입히는 의례를 하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사고이다.

죽순의 초하루는 6월 1일 치바현의 동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풍속으로 논가에 죽순을 세워놓고 작물의 성장을 짐치는 행위를 말한다. 죽순과 같이 빨리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마을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차례 차례 껍질을 벗으며 성장하는 죽순에서 보듯이 껍질을 벗는 신앙과 공통되는 점이 없지 않다.²³⁾ 벌레 퇴치도 치바현(千葉県)의 풍속인데, 이 날 절에서는 벌레 퇴치를 위해 기도가 행하여지고, 절에서 받은 부적을 논밭에 세워두기도 한다.

또 「만코쿠의 초하루」는 미야자키현(宮崎県)에서 카고시마현(鹿児島県)에 걸친 지역에서 보이는 풍속으로 마치 서양의 크리스마스와의 흡사하다. 가령 미야자키의 사이토바루(西都原) 지역에서는 6월1일에 만고쿠(万石)라는 신이

21) 鈴木棠三, 앞의 책 pp436-437

22) 鈴木棠三, 앞의 책 p440

23) 鈴木棠三, 앞의 책 p437

한밤중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여 아이들이 일찍 일어난다. 부모들은 몰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준비하여 베개머리 또는 집 안에 놓아둔다. 또 카고시마(鹿兒島)에서는 설날의 떡을 잘게 썬 것을 구워서 물에 묻혀 신에게 바친다고도 한다.²⁴⁾

이와 같이 지역마다 그에 대한 명칭과 행사의 내용이 조금씩 틀리지만, 어느 지역에서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공통점은 6월 1일을 시기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변화되는 시기라는 인식이다. 유행설날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설치되는 것이며, 또 「키누누기」와 「와타누키」, 죽순도 허물과 옷을 벗고 새로운 신체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코쿠의 초하루」도 설날의 떡을 바치고 천석, 만석의 부자가 되도록 빌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설날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행설날과 크게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 그야말로 6월 1일은 껍질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날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진결재(精進潔齋)하는 곳도 적지 않다. 가령 토치기현(栃木縣)의 일부지방에서는 6월 1일을 정진(精進)이라고도 하는데, 그 날을 맞이하기 6일 전부터 본채의 어느 한 개의 방을 정하고 거기에다 대나무를 세우고, 금줄을 치고 5세 이상의 남자아이들이 신사의 칸누시(神主)로 부터 가사(袈裟) 종이를 받아서 입고는, 그 안에 들어가 정진하거나, 또 강에 들어가 몸을 씻고 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 민속이 있는데, 그 때는 외부사람들은 일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수행이 모두 끝나는 날이 6월 1일의 아침이었다 한다.²⁵⁾ 여기에서 보듯이 6월 1일은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재생의 의미가 부여된 날이었다.

시기적으로도 모내기를 끝나고 긴장감이 풀리고 지금까지 피로가 누적되어 신체적으로 약화된 시기이며, 또 더위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병충해와 질병도 활개를 치는 계절이다. 그러므로 피로에 지친 몸에 기운을 불어 넣는 활력소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 때 기운을 차리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설날이라는 세시풍속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일본인들은 6월 1일을 설날로 삼아 축하함으로써 지금까지 불행했던 과거를 잊고, 풍요를 기원하며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1월의 설날의 분위기가 나는 행사인 떡과 「조오니」 등을 먹었으며, 또 설날의 떡을 말려두었다가 이 날에 먹기도 하였다. 이 때 먹는 떡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깨비의 머리로 비유되기도 했고, 또 그것을 먹으면 잇빨이 튼튼해진

24) 鈴木棠三, 앞의 책 pp438-439

25) 宮田登, 앞의 책 pp76-77

다 하여 「하카타메(齒固め)」라고도 했다. 이처럼 겨울철 설날에 있음직한 풍속 등이 이 날에 있는 것은 6월 1일이 재생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이 경험한 6월의 얼음과 얼음 떡, 그리고 카키모치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생겨난 절식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여름을 나기 위한 음식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속에는 설날을 한번 더 함으로써 더위와 불행을 극복하고 풍요를 기원하며 새로운 출발하려는 일본의 민속적 사고가 깔려져 있었던 것이다.

결 론

이상에서 보듯이 조선통신사의 기록에 나타난 6월의 민속으로는 주로 음식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그것을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측이 후지산을 지나갈 때 마다 그들에게 「카키모치」를 대접하면서 여름나기 위한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연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빠뜨리는 부분도 없지도 않았다. 가령 6월 1일에 천황과 관백이 먹는 얼음은 모두 후지산에서 가지고 오며,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얼음을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또 겨울에 준 떡을 여름에도 주면서 더위를 이기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 관심과 이해부족으로 생겨나는 오해이었다.

그리고 6월말에도 일본에는 여름나기 위한 종교적인 제의(夏越祓)가 많이 행하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불 기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으로부터 들었을 것 같지도 않다. 그만큼 그것들은 지역적이고, 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행동이 제약된 상황에서 그들에게 그것까지 기록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록에서 그 날 먹는 음식으로서 얼음, 얼음 떡, 그리고 카키모치 등을 기록하며 그것들이 일본에서는 여름을 나기 위한 음식이라고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카키모치」가 등장한다는 것은 높게 평가 할만하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연구서에서도 그것을 얼음의 초하루의 음식으로 기록한 예는 극히 드물며, 또 일반적으로도 그것을 빼고 단지 얼음과 얼음 떡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선통신사들이 이러한 점을 다시 일깨워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들이 남긴 6월의 민속에 관한 기록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参考文献】

- 경섬의 『해사록』
임수간의 『동사일기』
신유한의 『해유록』
조명채의 『봉사일본시문건록』
宇治谷孟 訳 『日本書紀(上)』(講談社 学術文庫. 1988年)
坂本要 『仏教行事歳事記 6月 雨安居』(日本アートセンター. 1989年)
鈴木棠三 『日本年中行事辞典』(角川書店. 1977年)
田中久夫 『年中行事と民間信仰』(弘文堂. 1985年)
宮田登 『江戸歳時記』(吉川弘文館. 1971年)
三越 『日本を楽しむ年中行事』(かんき出版. 2004年)
三田村鳶魚編 朝倉治彦校訂 『江戸年中行事』(中央公論社. 1981年)
長沢利明 『江戸東京歳時記』(吉川弘文館. 2001年)

要 旨

朝鮮通信使の記録に見える6月の民俗は、主に食べ物が多かった。というのも、富士山を
通っていくたびに 日本側から彼らに「搔き餅」を提供しながら、それは夏の暑さを払うことが出
来るといいながら、それに関するいろいろな話を聞かせたからである。これを聞いた彼らは、多
少誤解する部分もあり、見逃す点も少なくない。例えば6月1日に天皇と関白が食べる氷を富士
山から持ってくるのは、保存方法が発達していないからであり、またその餅に夏を乗り越える呪術
的な力をもつものと説明されても、すでに「笑うべきこと」として認識された。そして6月には、夏
を乗り越える宗教的な祭儀が多く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全く触れていない。それは見る機会も
聞く機会もなかったからだと思われる。それだけそれは地域的で、また個別적으로こなわれている
し、彼らの行動も制約されていた状況であったので、そこまでの記録を彼らに期待するということ
は初めから無理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それにも拘わらず、,当時の日本人は6月1日に暑気払い
のために天皇や関白のような上流階級は氷を食べ、一般庶民は12月や正月初めに餅を作って
干したものを氷の代わりに食べるという日本独特の民俗文化を 海外に初めて知らせたのは、ま
ぎれもなく朝鮮通信使たちだった。こうした意味からすると、彼らの記録は、当時の日本の民俗
文化を読み取る宝庫といえるのかもしれない。

キーワード：朝鮮通信使、賜氷節、氷の朔日、氷室、富士山、氷餅

투 고 : 2007.11.30

1차 심사 : 2007.12.08

2차 심사 : 2007.12.29

住 所 : (680 - 749)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29번지

電 話 : (052)259-2542

e-mail : nosh1@hanmail.net